

연구논문

농촌가정의 의생활 관리 실태 조사연구

-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

염희경 · 최정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Clothing Management in the Rural Household

- In Sihung-Si Gyonggi-Do Province -

Yeom, Hee-Gyong . Chio, Jeong-Wha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o lead rural clothing management in the rural household, we assessed in terms of the wearing of pesticide protective clothing and care methods of contaminated clothing, consumer consciousness, the discard method of clothing et al. in rural areas of Gyonggi-Do by sampling 122 household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

1. The behavior for laundering management didn't appropriate in view of certification of label about laundry method, frequency of laundry and quantitative use of detergent. Also family's cooperative attitude wasn't insufficient.
2. Reasons of dissatisfaction about retained clothing were decreased in order of discoloration, shrink or breakage after laundry, breakage of seam or cloth, unlabel, allergy from cloth. The solution of trouble was acted passively.
3. Reasons of hoarding of clothing were high because of change on size, fashion, and low because of worn-out. Still-wearable garments were discarded in proportion of one to one.
4. The ratio of putting on the fatigue cap which the Office of Rural Development has propagated was under 10 percent.
5. Protective clothes against agricultural chemicals had not been prepared and contaminated clothing was often washed with regular family wash.

Key word: rural household, pesticide protective clothing, consumer consciousness, clothing management, laundering management

*본 연구의 일부는 1995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의생활은 외적으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피복소재의 개발, 의류의 대량생산,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소비화, 유행화, 다양화, 기능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가치의식 변화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의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의 세탁배수에 의한 환경오염, 의류의 분리수거 등 의생활관리는 생활환경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반내구재였던 의류가 단순한 소비품으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의류의 소비나 구입에 대한 실태는 비교적 잘 파악되어 있으나, 의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폐품화된 의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실태는 거의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낮고, 고령화, 낮은 교육수준, 새로운 정보의 입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 성향이 낮고, 유행에 민감한 편이 아니다. 또한 농작업을 수행하므로 외출복보다는 평상복이나 작업복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농민의 경우 평상복과 작업복을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아, 농약살포시조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최승윤 등, 1984; 윤복자 등, 1990). 농약 방제복의 착용율이 높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농가에서는 농약의 잔류물이 세탁 중에 제거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농약방제복의 세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Nelson & Fleeker, 1988), 심지어 보통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Rigakis 등, 1987).

우리나라의 노지 고추를 재배하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작업복이 아주 더러워졌을 때 다른 옷과 분리해서 세탁한다고 한 응답자 수가 더 많다고 보고(박공주, 최정화, 1993)된 바도 있으나 기타 의생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약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

적인 증상은 유행성감기류이고, 장기적인 증상은 암이나 유전적 변화라고 보고되고 있다(Boraiko, 1981; Moraski & Nielsen,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의생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생활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새로운 정보의 입수가 비교적 빠른 도시근교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방제복 착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의식, 폐의류의 처리 방법 등 농촌 의생활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정보의 입수기회가 비교적 많고,兼業農도 가능한 서울근교의 농가를 대상으로 의생활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시흥 시로 선정하였다.

1994년 4월 11일 산현 2동에서 26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994년 6월 14일

〈표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 수=122)		
	%	(N)
주부의 연령	20대	5.7 (7)
	30대	29.6 (36)
	40대	25.5 (31)
	50대	19.6 (24)
	60대 이상	19.6 (24)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43.4 (53)
	국졸	23.0 (28)
	중졸	31.1 (38)
	고졸	2.5 (3)
	고졸 이상	0 (0)
가족유형	핵가족	61.6 (75)
	확대가족	38.5 (47)
가족원 수	2	8.2 (10)
	3	6.6 (8)
	4	24.5 (30)
	5	21.3 (26)
	6	16.4 (20)
	7 이상	23.0 (28)
	농업유형	농가
비농가		23.8 (29)

부터 7월 14일까지 한달 간 122명의 농가 주부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또한 본고에서의 농촌 가정이라 함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아도 포함시켰다.

2. 측정 도구

농가의 의생활 관리 조사는 26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주부 1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이정우, 최동숙, 1983; 可藤敏子 등, 1987; 윤복자 등, 1990)와 예비조사를 기초로 하여 총 28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가정에서의 세탁관리행동에 대해서 (16문항)
- 의류에 대한 불만의 종류와 불만사항 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2문항)
- 의류의 폐기 이유와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2문항)
- 농작업복의 착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8문항)

Ⅲ. 결과 및 고찰

1. 세탁관리행동

세탁관리행동이라 함은 세탁물의 수거에서 세탁 후 정돈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Ruth, Francie, 1975).

그러므로 세탁기 보유현황에 따라 세탁관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 현황을 살펴본 결과, 93%의 가정이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조식인 전자동 세탁기의 보유량이 이조식인 반자동 세탁기의 보유량보다 약 13% 높았다(표 2). 세탁기 보급율은 선행연구(이정우, 최동숙, 1983; 한명순, 1979)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상을 보여 과거 10여년 사이에 많은 증가를 보였다. 특히 농가의 세탁기 보급율이 1980년 1.2%, 1985년 6.5%, 1990년 37.4%인 것(이영대, 1991)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탁기 보급율이 99%인 것(차옥선,

이일심, 1994)과 비교해서 본 조사결과인 93%는 높은 보급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조사대상 지역의 농촌근교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세탁기가 있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세탁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약 11%로 비교적 적었고, 주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손 세탁도 가끔 하는 경우(47%)와 세탁기 사용과 손 세탁의 비율이 반반인 경우(23%)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표 3). 이것은 과거 10여년 전에 실시된 선행연구(이정우, 최동숙, 1983)에서 전통적인 세탁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 현재의 농촌은 과거에 비해 의생활 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탁기가 있어도 손 세탁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세탁기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세탁되지 않음이 75%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전기비용(10%), 사용법의 어려움(6%), 세탁물을 모으기가 싫음(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탁기 세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바침해 준다.

〈표 2〉 세탁기 유무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의 종류

조 사 항 목	%	(N)
세탁기 있다	93.4	(114)
[전자동 세탁기	[53.4	(65)
2조식 세탁기	40.1	(49)
세탁기 없다	6.6	(8)
계	100	(122)

〈표 3〉 세탁기 유무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의 종류

조 사 항 목	%	(N)
전적으로 세탁기를 사용한다.	10.5	(12)
주로 세탁기를 사용하고 손	46.5	(53)
세탁도 가끔 한다.		
세탁기 사용과 손 세탁의 비	22.8	(26)
율이 거의 반반씩이다.		
주로 손 세탁을 하고 세탁도	18.4	(21)
가끔 사용한다.		
전적으로 손 세탁을 한다.	1.8	(2)
계	100	(114)
무 응 답		(8)

〈표 4〉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기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

조 사 항 목	%	(N)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 않는다.	74.5	(38)
전기 비용	9.8	(5)
사용법이 어렵다.	5.9	(3)
세탁물을 모으기가 싫다.	5.9	(3)
기타	3.9	(2)
계	100	(51)
무 응 답		(71)

세탁관리 행동의 문항별 반응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세탁 전 세탁방법에 대한 라벨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고, 항상 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이것은 농촌 주부의 경우 세탁방법 표시 기호를 교육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면접 결과, 라벨이 없는 의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답변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류 중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의류도 있음을 알 수 있어 의류유통에 대한 문제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탁물이 생기는 대로 빨래하는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고 자주 그렇게 하는 경우가 13%로, 48%의 가정에서 세탁빈도가 높고, 무계획한 세탁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이정우, 최동숙, 1983) 결과와 일치하며, 세탁기 보유율이 93%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의생활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세탁 전 세탁물을 분류하는 경우는 항상 함이 61%, 자주 함이 14%로 나타나서 약 75%의 가정이 세탁물을 분류해서 세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혀 분류하지 않는 가정도 10%로 나타났다.

〈표 5〉 세탁관리 행동의 문항별 반응

조 사 항 목	%						계	무응답
	전혀 안 함	별로 안 함	가끔 함	자주 함	항상 함	(N)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에 대한 라벨을 확인한다.	26.7 (32)	20.9 (25)	25.8 (31)	10.8 (13)	15.2 (19)	100 (120)	(2)	
세탁물이 생기는 대로 빨래를 한다 (모으지 않는다)	18.7 (22)	16.1 (19)	17.8 (21)	12.7 (15)	34.7 (41)	100 (118)	(4)	
세탁하기 전에 세탁물을 분류해서 세탁한다.	10.2 (12)	8.5 (10)	5.9 (7)	14.4 (17)	61.0 (72)	100 (118)	(4)	
애벌빨래를 한다.	12.4 (14)	9.7 (11)	23.9 (27)	15.9 (18)	38.1 (43)	100 (113)	(9)	
세제는 설명서를 읽고 사용량대로 정량해서 사용한다(세탁시)	18.3 (21)	25.2 (29)	15.7 (18)	13.0 (15)	27.8 (32)	100 (115)	(7)	
속옷 등은 표백살균한다.	5.9 (7)	3.4 (4)	22.0 (26)	24.6 (29)	44.1 (52)	100 (118)	(4)	
벗어놓은 옷들은 세탁자가 혼자 모아서 세탁장소로 가져간다.	19.6 (22)	11.6 (13)	10.7 (12)	6.3 (7)	51.8 (58)	100 (112)	(10)	
건조시 변형가능한 옷은 옷걸이를 사용하거나 채에 받혀서 널다.	14.7 (17)	9.5 (11)	24.1 (28)	11.2 (13)	40.5 (47)	100 (116)	(6)	
다 마른 세탁물은 세탁자가 개어서 각각 서랍에 넣어준다.	6.9 (8)	5.1 (6)	11.1 (13)	11.1 (13)	65.8 (77)	100 (117)	(5)	
스커트나 블라우스는 다림질한다.	16.4 (19)	11.2 (13)	29.3 (34)	9.3 (11)	33.6 (39)	100 (116)	(6)	

〈표 6〉속옷 등의 표백 살균방법

조 사 항 목	%	(N)
삶는다	66.7	(80)
표백살균제(락스 등)를 사용	20.0	(24)
삶거나 표백살균제를 사용	10.8	(13)
안한다.	2.5	(3)
계	100	(120)
무 응 답		(2)

〈표 7〉의복의 푸세방법

조 사 항 목	%	(N)
물을 쏘어서 한다	25.8	(31)
스프레이이 풀로 한다	9.2	(11)
화학 물을 개어서 쓴다	4.2	(5)
안한다	60.8	(73)
계	100	(120)
무 응 답		(2)

에벌빨래는 항상 함이 38%, 자주 함이 16%로 전체의 반수 이상이 에벌빨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사용시 설명서를 읽고 정량해서 사용하는 가정(항상함 28%, 자주함 13%)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전혀 안함 18%, 별로 안함 25%)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세제의 과용을 초래해서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세제 사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정우와 최동숙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세제 사용량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속옷 등은 삶거나 표백 살균하는 경우(항상함 44%, 자주함 25%)가 60% 이상이어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백 살균방법에 관해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는다가 67%로 가장 많고 표백살균제의 사용은 20% 정도였다. 이정우와 최동숙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 삶는 방법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삶는 방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벗어 놓은 옷은 세탁자가 혼자 모아서 세탁장소로 가져가는 경우가 52%로 높게 나타났고, 다 마른 의복을 세탁자가 개어서 각각의 서랍에 넣어주는 경우도 66%인 것으로 보아 주부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3년 도시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와 최동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건조시의 옷걸이나 채를 사용하는 경우(항상함 41%, 자주함 11%)는 52%로 그렇지 않은 경우(전혀 안함 15%, 별로 안함 10%)에 비해 높아서 이정우와 최동숙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스커트나 블라우스의 다림질 여부는 항상 함이 34%로 가장 높고, 전혀 안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해서 외출복에는 상당수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푸세 방법은 물을 쏘어서 한다가 26%로 나타났고 스프레이 풀이나 화학 풀의 사용율은 낮았다. 또한 푸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61%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성섬유의 발달과 구김방지처리 가공의 발달로 가사작업이 많이 간소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된다(표 7).

2. 의류에 대한 불만의 이유와 그 해결방법

보유하고 있는 의류에 대한 불만의 이유는 표 8에 나타내었다. 불만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색 변색으로 42%였고 세탁 후 줄어들거나 파손(33%), 봉합선이나 천자체의 파손(30%), 라벨의 없음(6%), 피부알레르기 등의 의류장해(4%) 순이었다. 加藤敏子 등(1987)은 구입한 의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만을 신고하면 기업은 더욱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몸에 익혀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결과를 보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는 18%였고, 소비자 단체에 신고한 경우는 1%인 반면 80% 이상이 이후 대책을 하지 않아서 소극적인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1992년 농촌 소비자 행동 조사분석(이한기, 한귀정)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8〉 보유하고 있는 의류에 대한 불만의 이유
(복수응답)

조 사 항 목	%*	(N)
색 변색	41.7	(50)
세탁후의 변형(줄어듦, 파손)	33.3	(40)
봉합선이나 천 자체의 파손	30.0	(36)
라벨이 없다 (세탁방법, 품질표시)	5.8	(7)
의류장해(피부알레르기)	4.2	(5)
기타	0.8	(1)
불만이 없다	30.0	(36)
계		(175)
피조사자 수		(120)
무 응 답		(2)

주) * 각 항목의 % 수치는 피조사자 수에 대한 비율임

〈표 9〉 의류에 관한 불만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

조 사 항 목	%	(N)
전혀 이후 대책을 하지 않았다	47.8	(43)
불만을 이웃에게 말했다	33.3	(30)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17.8	(16)
신고한다	1.1	(1)
계	100	(90)
무 응 답		(32)

3. 의복을 소장하는 이유와 그 폐기처리 방법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복을 소장하는 이유는 체형의 변화가 44%로 가장 높고, 유행(27%), 색이나 모양의 불만족(26%), 외관수명이 다 된 경우(24%), 입을 기회의 부재(22%)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래 입어서 색이나 천이 파손되어서 소장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1976년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박찬부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조사대상이 서울근교 농가였다는 점과 그간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오래되었다고 폐품 처리하는 경우가 12년전 보다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한다(加藤敏子 등, 1987). 따라서 자원재활용의 인식이 요구되며 유행보다는 개성을 강조하는 소비자 의식이 필요하겠다.

〈표 10〉 의복을 소장하는 이유(복수응답)

조 사 항 목	%*	(N)
체형의 변화	44.3	(54)
유행에 뒤떨어져서	27.0	(33)
색이나 모양의 불만족	26.2	(32)
의복이 헐어서 (색 변색, 천의 파손)	23.8	(29)
입을 기회가 없어서	22.1	(27)
기타	4.9	(6)
계		(181)
피조사자 수		(122)

주) * 각 항목의 % 수치는 피조사자 수에 대한 비율임

〈표 11〉 의복의 폐기 방법

조 사 항 목	%	(N)
이웃이나 친지에게 준다	37.5	(45)
소각	22.5	(27)
그냥 둔다	15.0	(18)
수선해서 입는다.	14.2	(17)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10.0	(12)
기타	0.8	(1)
계	100	(120)
무 응 답		(2)

착용 가능한 의복의 폐기 처리 방법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주는 경우가 38%로 가장 높고 소각(23%), 방치(15%), 수선(14%),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10%) 순이었다(표 11). 18년 전 농촌을 대상으로 한 박찬부의 연구(1976)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신상옥의 연구(1976)에 의하면 수선해서 입거나 이웃 또는 이재민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는 적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可藤敏子 등, 1987)에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준다가 가장 많고 버리는 경우는 20%로 적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는 이웃이나 친지에게 주거나 수선해서 입는 경우는 52%에 불과해서 의복을 바람직하게 처리한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물물교환 인식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농작업시 착용하는 의복 관리 실태

(1) 농약살포를 제외한 농작업시

농약 살포를 제외한 농작업시 작업복과 평상복

을 구별해서 입는 경우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각각 82%, 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총복지방을 대상으로 한 박찬부의 연구(1976)와 비교하면 구별하는 비율이 약 40% 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생보건상 바람직한 경향이라 생각된다. 또한 구별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별하는 경우, 작업복으로 입는 의복은 남자의 경우에는 낡은 평상복의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작업복 용도로 구입한 것을 입는 비율은 44%였다. 여자의 경우, 몸빼와 낡은 평상복이 각각 43%로 나타났고, 작업복 용도로 구입한 것을 착용하는 경우는 19%였다(표 10). 이것은 전형적인 농촌을 대상으로 한 윤복자 등의 연구(1990) 결과와 일치하는데 지역적, 농업 유형적, 연령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머리부위에 착용하는 피복은 남녀 모두 모자의

〈표 12〉 작업복과 평상복의 구별 여부

조 사 항 목	남	여
구별한다	81.5(66)	83.2(79)
구별하지 않는다	18.5(15)	16.8(16)
계	100 (81)	100 (95)
무 응 답	(41)	(27)

〈표 13〉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별하는 경우 농사일(농약살포제외)을 수행할 때 착용하는 의복(복수응답)

조 사 항 목	남	여	%* (N)
낡은 평상복	63.6(42)	43.0(34)	
몸빼	0.0(0)	43.0(34)	
작업복 용도로 구입한 것	43.9(29)	19.0(15)	
기타	1.5(1)	3.8(3)	
계	(72)	(86)	
피조사자 수	(66)	(79)	
무 응 답	(56)	(43)	

주) * 각 항목의 % 수치는 피조사자 수에 대한 비율임.

〈표 14〉 농사일(농약살포 제외)을 수행할 때 머리에 착용하는 피복

조 사 항 목	남	여
모자	80.7(67)	47.5(46)
수건	1.2(1)	36.1(35)
보급용 농작업모	2.4(2)	8.2(8)
쓰지 않는다	15.7(13)	8.2(8)
계	100 (83)	100(97)
무 응 답	(39)	(25)

비율이 각각 81%, 48%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수건도 3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14).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작업모의 착용 비율은 남녀 각각 2%, 8%로 나타나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보급용 농작업모를 착용했을 때 머리 속이 덥다거나 뒷목이 뜨겁다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연구결과(농촌진흥청, 1984)를 반영한 듯이 보여, 쾌적하면서 방서효과가 있는 모자의 개발보급이 계속 되어야 하겠다.

(2) 농약 살포시

농약방제복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남녀 각각 24%, 1%로 낮았다. 또한 방제복이 있는 경우에도 농약살포시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우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남녀 각각 50%, 60%로 나타나 방제복 보유의 유무만으로는 농약 살포시 그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의복은 작업복이 55%로 가장 많았고, 우비(30%), 평상복(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복자 등의 연구(1990)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농약 살포시 별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장비를 표 16에 제시하였는데 모자와 장갑이 각각 72%, 70%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마스크(55%), 수건(40%), 보안경(6%), 장화(6%) 순이었다. 결국 머리와 손 부위에는 농약이 침투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반면, 호흡기나 눈을 통한 인체로의 농약 침투는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살포시 착용한 의복의 세탁방법을 표 17에 제시하였는데 항상 다른 세탁물과 분리해서 세탁

〈표 15〉 농약 방제복의 유무와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의복

		남			여			% (N)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23.8	76.2	(38)	1.1	90.9	(34)	
작업복	54.5	37.5	61.7	48.0	20.0	61.4	38.1	
우비	29.7	50.0	25.0	28.0	60.0	24.0	42.9	
평상복	14.9	12.5	13.3	20.0	20.0	13.3	19.0	
기타	0.1	0.0	0.0	4.0	0.0	1.3	0.0	
계	100 (101)	100 (16)	100 (60)	100 (25)	100 (5)	100 (75)	100 (21)	
무응답	(21)	(4)	(4)	(13)	(3)	(5)	(13)	

〈표 16〉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장비(복수응답)

조 사 항 목	%*	(N)
마스크	54.5	(60)
작업모	71.8	(79)
수건	40.0	(44)
장갑	70.0	(77)
보안경(가글)	5.5	(6)
장화	5.5	(6)
계		(272)
피조사자수		(110)
무응답		(12)

주) * 각 항목의 %수치는 피조사자 수에 대한 비율임.

하는 경우는 69%로 나타나 31%의 가정에서는 농약 살포시 입은 의복의 세탁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약잔류물이 세탁 중에도 제거되기가 어렵다(Rigakis 등, 1987)는 점을 고려할 때 농약 살포시 입은 의복은 반드시 분리해서 세탁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나아가 1회용 농약 방제복의 보급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농약의 危害를 인식하고, 1회용 농약방제복의 보급을 위한 연구(Perkins 등, 1992)와 경제적 비용을 고려 1회용 농작업복을 반복 세탁해서 사용할 경우 방제력의 지속력에 관한 연구(Matherine - Scott 등, 1993)가 진행되고 있다. Perkins 등의 연구(1992)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농민들은 농약 살포 시에는 1회용 농약 방제복을 입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방법이며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의 농민들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회용 농약 방제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농약의 독성에 대한 교육, 적절한 농약방제복의 개발과 보급, 착용된 방제복의 처리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이미 개발된 농약방제복(최정화 등, 1987) 등이 있으나 농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못하고,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7〉 농약 살포시 입은 의복의 세탁방법

조 사 항 목	%	(N)
다른 세탁물과 같이 세탁한다.	10.2	(11)
다른 세탁물과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한다.	20.6	(22)
항상 분리해서 세탁한다.	69.2	(74)
계	100	(107)
무응답		(15)

〈표 18〉 1회용 농약방제복에 대한 인지도

조 사 항 목	%	(N)
들어본 적이 있다	11.9	(13)
들어본 적이 없다	88.1	(96)
계	100	(109)
무응답		(13)

IV. 결론

농촌지역의 합리적인 의복관리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교적 새로운 정보의 입수가 빠른 경기도 시흥군의 122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방제복 착용, 관리의 측면을 강조해서 소비자의식, 폐의류의 처리방법 등 농촌 의생활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탁관리 행동은 세탁방법에 대한 라벨의 확인, 세탁의 빈도, 세제의 정량 사용 면에서 부적절했으며, 가족들의 협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유하고 있는 의복의 경우 색변색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크고 세탁 후 줄어들거나 파손, 봉합선이나 천자체의 파손, 라벨의 없음, 피부알레르기 등의 의류장해 순으로 불만 정도가 나타났고, 불만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을 사장하는 이유는 체형의 변화나 유행 등의 비율이 높았고, 외관 수명이 다 된 경우는 24%에 불과했으며, 착용가능한 의복의 폐기 방법 중 이 옷이나 천자에게 주는 경우는 52%에 불과했다.

4. 농약 살포를 제외한 농작업시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농작업모의 착용비율은 남녀 모두 10% 이하였다.

5. 농약 살포시, 농약방제복의 착용율이 극히 낮았고, 농약 살포시 입은 의복을 신경 써서 항상 다른 세탁물과 분리해서 세탁하는 경우는 약 30%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농촌의 의생활 관리는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민의 건강을 고려할 때 농약방제복의 보급이 시급하고, 농약의 위해성을 교육시킬 필요가 요구되며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도 지도되어야 하겠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이나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의류의 폐기방법 등도 교육되어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세탁기 세탁방법도 지도되어야 하겠다.

V. 인용문헌

농촌진흥청 (1984). 농작업모 착용실태조사

박공주, 최정화(1993), 농민 의생활 연구, 농촌영양개선연수원 연구조사보고서

박찬부(1976). 농촌 의생활 과학화를 위한 조사연구 - 충북지방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14(2)

신상옥(1976).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유호경, 오희선, 이호열(1990). 경남지역 농촌 의식주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윤복자, 강혜원, 조길수, 손경희, 광동경, 지순, 김경희(1990).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 실태 조사연구 - 의식주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8(4)

이영대(1991). 사회지표로 본 농촌생활, 농촌생활과학, 12(3)

이정우, 최동숙(1983). 도시 가정의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3)

이한기, 한귀정(1992). 농촌 소비자행동 조사분석, 농촌생활과학, 13(1)

차옥선, 이일심(1994). 일반가정의 세탁습관 및 반복세탁에 의한 백색 면내의의 잔류오염, 한국 의류학회지, 18(4)

최승윤 등(1984), 수채용 농약에 의한 농해 발생요인 연구, 농약공업협회, 12월

최정화, 김현식, 정영옥(1987). 농약방제복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2)

한명순(1979). 주부의 가사노동관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加藤敏子, 大森和子, 藤枝恵子, 金原ちる子(1987), 高等學校 衣生活教育に 關する 考察 (第1報), 日本家政學會誌, 38(7)

Boraiko, A. A. (1980), The pesticide dilemma. National Geographic

Matherine - Scott, S. Y., Kerr, N., Rigakis, K. B. (1993), Effect of abrasion on penetration of tri - allate through selected disposable coverall fabr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Moraski, R. V., Nielsen, A. P. (1985), Protective

- clothing and its significance to the pesticide user. American Chemical Society Symposium Series, 273
- Nelson, C. N. , Fleeker, J. R. (1988), Farm families' attitude and practices regarding pesticide application and protective clothing : A five-state comparison part 2 : Launder data,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 Perkins, H. M. , Crown, E. M. , Rigakin, K. B. , Eggertson, B. S. (1992),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of agricultural workers toward disposable protective coverall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1)
- Rigakis, K. B. , Martin - Scott, S. , Crown, E. M. , Kerr, N. , Eggertson, B. (1987), Limiting pesticide exposure through textile cleaning procedures and selection of clothing, Agriculture and Forestry Bulletin, 10(2)
- Ruth, E. D. , Francile, M. F. (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Houghton Mifflin Company